

‘행복한 엄마 만들기’ 지자체가 나선다

전남도, 임신 공무원 위해 청사에 태교방
여성농업인 출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광주시, 행복주택 사업·손자녀 돌보미 사업
난임부부에 시술비·고위험 산모에 의료비

전남도가 임신한 공무원들을 위해 청사에 ‘태교방’을 만들었다. 또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영농을 대행해줄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광주지치구는 ‘워킹맘 아카데미’ 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값한방침약’, ‘전자파 차단 알차미’ 등을 지원한다. 임신부를 배려해 사회문제가 된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다.

광주시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올해 출산양육 부담 경감과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시민 공감형 출산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6대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첫째아이에게 출산축하금 5만원을 지원하고, 남성장애인 출산가정에도 축하금을 전달한다. 또 신혼부부 행복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를 보출 경우 한달에 10만~25만원을 지원하는 ‘손자녀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을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난임·불임 시술비를, 고위험 산모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아이사랑 카드’로 할인혜택을 준다.

광주지역 각 자치구에서도 출산장려금·축하금 지급을 비롯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동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현명한 엄마, 행복한 아이’, ‘행복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교실’, ‘우리 아기 EQ·IQ 쑥쑥!’,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로 임신·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자녀 산모나 난임 부부에게 ‘반값한방 침약’을 지원

주고, 다자녀가정에게는 자녀 출생을 기념해 식수를 십여준다.

서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눠 지원한다. 출산 전 정책으로는 예비부부 무료 건강케어, 임신부 기초 9종 검사, 임신부 임신제·철분제 지급, 예비엄마 건강교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등을 진행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교체분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남구는 임신제·철분제 지급을 통해 임신부 영양상태를 관리해준다. 또 예방 접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장애인 임신부 산전검진, 청소년 산전 건강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이사랑 물품교환 센터를 운영하는 등

북구는 광주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직장어린이집’ 개설·운영하고, 직장 맘을 위한 ‘직장 맘 행복교실’도 함께 운영 중이다. 또, 임신부와 아이의 영양을 책임지는 ‘모아사랑 행복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감염병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출산 공직자를 위해 편의용품 지원한다. 공직자의 경우 부담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충원 제도’를 활성화해 눈치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다동이 가정표장을 통해 출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임신한 공무원들을 위해 청사에 ‘태교방’을 설치하는 등 임신부 배려정책을 통해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농도 전담’ 특성을 감안해 여성농업인이 출산 하면 영농을 대행해줄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준다.

/*전문의자 ej6621@kwangju.co.kr

안전기준 어진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

3M 강력접착제, 맑은썩크, 손오공본드 등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28개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에게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한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퇴출된 제품은 세정제가 12개로 가장 많고, 코팅제 5개, 접착제 3개, 문신용 염료 3개, 방한제 3개, 탈취제 2개다. <표 참조>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제품으로는 세정제 10개, 물체 탈·염색제 8개, 방한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접착제 2개, 합성세제 1개, 방청제 1개, 소독제 1개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해 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 안전기준 위반으로 퇴출된 생활화학제품

생산·수입자명	품목	모델명	조사결과
한국쓰리엠(주)	세정제(생산)	육살청소용 크린스틱	폼알데하이드 0.0078%
한국쓰리엠(주)	접착제(생산)	다용도 강력접착제	염화비닐 0.0084%
한국쓰리엠(주)	접착제(생산)	강력접착제(다용도)	염화비닐 0.0084%
맑은나라	세정제(생산)	맑은 썩크	폼알데하이드 0.0063% 황산 0.0035%
(주)백스인터코퍼레이션	세정제(생산)	가정용백스린 120매	폼알데하이드 0.0241%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주)	세정제(수입)	자이스 렌즈 클리너	폼알데하이드 0.1176%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주)	세정제(수입)	LENS CLEANING WIPES	폼알데하이드 0.009%
오트맨	세정제(수입)	라임프라이프 프리엑스 클린저	폼알데하이드 0.0166%
오트맨	세정제(수입)	슈퍼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	폼알데하이드 0.0183%
국동제연(주)	세정제(수입)	아마존 울트라 사인웨이&와스	폼알데하이드 0.013%
국동제연(주)	세정제(수입)	아마존 외장폴리스틱변파복원제	폼알데하이드 0.028%
국동제연(주)	세정제(수입)	아마존 실내크리너티슈	폼알데하이드 0.0098%
오트와스	세정제(수입)	듀라클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 레이트	폼알데하이드 0.0061%
오트와스	코팅제(수입)	화이트다이아몬드소클레이즈	폼알데하이드 0.0119%

생산·수입자명	품목	모델명	조사결과
오트와스	코팅제(수입)	소너스 아크릴클링라츠	폼알데하이드 0.0104%
(주)일신CNA	세정제(생산)	카브레타	디클로로메탄 20.423%
(주)유신케미칼	접착제(생산)	록스타 손오공본드	톨루엔 17.95% 디클로로메탄 0.6464%
나오테크(주)	코팅제(수입)	마루마루스프레이 물왁스	폼알데하이드 0.0142%
에이큐에이(주)	코팅제(수입)	스피드와임	폼알데하이드 0.0276%
(주)수론터더	코팅제(수입)	3P	폼알데하이드 0.0099%
엔제네랄코리아	문신용염료(수입)	카리스마색소 라이트 브라운	무균시험 부적합
바이올렛	문신용염료(수입)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	폼알데하이드 0.0046%
바이올렛	문신용염료(수입)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	무균시험 부적합
NKI	문신용염료(생산)	타치미 마실라레드	폼알데하이드 0.0047%
(주)세튼	방한제	아로마 후레쉬	메탄올 0.226%
(주)폴엔마틴	방한제	신글루 디퓨저	메탄올 0.7567%
(주)폴엔마틴	방한제	폴엔마틴 룸스프레이	메탄올 0.801%
(주)나바엔	탈취제	자동차탈취제	폼알데하이드 0.0036%
(주)태양	탈취제	부츠 신발 탈취 스프레이	은(銀) 0.001%

※안전기준: 폼알데하이드 0.004%이하, 염산·황산 0.001% 이하, 톨루엔 0.5% 이하, 메탄올 0.2%이하, 은 0.00004% 이하, 염화비닐 사용제한 물질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겨울에 더 잘 걸리는 ‘장염’

얼음 등서 번식 노로 바이러스 원인...위생관리 잘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이 아닌 겨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세 이하에서 감염성 장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2011~2015년)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감염성 장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감염성 장염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525만2174명으로 2011년 424만7960명 대비 23.6%(101만 명) 늘었다.

감염성 장염에 대한 최근 3개년 월별 평균 진료인원을 비교한 결과, 1월에 7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2월 69만2000명, 8월 60만8000명,

7월 55만8000명 순이었다.

월별 추세의 특징 중 하나는 봄과 가을에 진료인원이 감소하고 여름과 겨울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점이다.

실제 가을철인 10월(43만1000명), 11월(46만5000명)과 봄철인 4월(46만7000명), 3월(47만7000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조영석 교수(소화기내과)는 “장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하며,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며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 섭취를 금지하고, 위생이 좋지 않은 식당이나 길거리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의자 ej6621@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옥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